尖端技術開發 4천억 投入

第2回 技術振興擴大會議에서

제2회 기술진흥확대회의가 11월 21일 政府, 國會 및 政党, 産業界, 科學技術界, 學界代表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들어 두번째 열린 이번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는 주로 최근의 國內外 기술개발동향을 분석, 검토하고 앞으로의 對應方向과 중점추진시책이 제시되었으며 年間 3조원이상의 막대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政府 및 정부투자기관의 구매제도를 종래 가격위주의 최저가격입찰제에서 品質, 性能, 効率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의 실시방안이 검토되었다.

또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앞으로 研究開發의 중점 방향을 전략적인 첨단기술과 재래기술을 조화있게 추진하는 방안과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現實的인 課題인 외채감소나 에너지절약 그리고 自動化를 통한 生産性 및 品質向上에 研究開發方向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會議에서는 첨단기술개발자금 4천억원 투입방안을 비롯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체제의 방향을 실증적으로 정립,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實技術開發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個 優秀開發事例가 선정됐고, 이들 業體·代表 및 관계 연구원이 그동안 技術研究開發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았다.

韓·美 技術協力 強化

12개과제 共同研究

李正五과기처장관과 윌리엄·슈나이더美국무성차관間에 마련된 이번 합의의사록은 모두 9개항으로 앞으로 韓·美 兩國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작년 11월 한·미정상 공동회담에서 합의된 兩國 科學技術協力 增進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必要時 한·미과학기술각료회의를 서울과 워싱톤에서 번갈아 열어, 兩國의 協力에 필요한 重要政策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미국이 보유한 대형 고가의 研究施設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촉진키로 했다.

합의의사록 서명에 따라 앞으로 兩國은 유전공학, 화학물질의 안전성, 대륙붕탐사를 위한 地質調査 등 12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케 된다.

原電5號機 核燃料裝塡

내년 6월 준공 예정

古里에 건설중인 95만KW의 原子力5號機가 당초의 공정을 3個月 앞당겨 10월 4월 최초로 核燃料裝塡을 마쳤다.

原電6號機와 함께 건설되고 있는 原電5號機는 輕水爐型으로서 농축우라늄이 사용되며, 이번 核燃料는 美國의 WH社가 공급한 것인데 157개의 핵연료다발중 1/3은 1년후에 새 연료로 교체된다.

原電5·6號機는 우리나라 최초로 「넌턴키」방식을 채택, 국내 주도형으로 建設되고 있으며 施設容量도 이제까지의 原電이 모두 60만~70만KW급인데 비해, 95만KW의 大容量 發電所로서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과 엄격한 品質檢査方法을 적용하여 WH社가 NSSS, 核燃料 供給을, 英國 GEC社가 터빈發電機 供給을 맡아 現代建設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原電5號機는 앞으로 초임계도달, 원자로물리시험, 출력상승시험 등을 거쳐, 85년 6월에 商業運轉에 들어갈 예정이며, 6號機도 86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建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科學技術大 86년3월 開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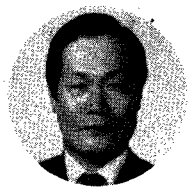
政府는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忠南 大德에 建設中인 科學技術大學을 韓國科學技術院 부설로 오는 86년 3월에 開校키로 했다.

科學技術處는 과학기술 대학이 올해 안에 자연과학부 210명, 산업기술공학부 330명 등 모두 540명을 선발, 내년 3월 開校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特別法을 제정, 내년 10~11월경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86년 3월에 開校한다고 밝혔다.

ANS韓国支部 뉴우스

支部活動 活性化 協議

金會長, ANS會議 參席



金善昶 美國原子力學會(ANS)韓國支部 會長은 權彝泳 主務와 함께 지난 11월11일부터 美國 워싱톤에서 열린 美國原子力學會會議에 참석하여 支部委員會(Local Section Committee)에서 韓國支部의 現況을 소개하고 支部와 本部와의 諸般協力問題를 論議하는등 支部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特別세미나 開催

美國原子力學會(ANS) 韓國支部는 韓國科學技術院(KAIST) 및 韓國電力技術(株) 核工學部와 공동주관으로 카나다原子力公社 Thermal Hydraulics Development Bank의 책임자인 D.C. Groeneveld 박사를 초빙, 지난 10월31일 韓國科學技術院에서 Critical Heat Flux and Post CHF Heat Transfer라는 主題로 特別세미나를 開催하였다.

現代, 靈光原電建設現場

無災害 200만시간 돌파

現代建設 영광원자력발전소건설현장이 國內 건설현장으로서는 가장 오랜 무재해기록을 세웠다.

이 發電所 現場에서는 지난 7월 1차로 무재해 1백만시간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10일 12시까지 총 작업인원 6천4백명이 33일동안 아무런 事故없이 작업을 펴 무재해운동 2차목표인 2백만시간을 돌파했다.

動資研, 에너지節約센터發足

에너지節約型裝置新技術化주력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관련연구를 조직적, 체계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추가 될 에너지절약센터가 韓國動力資源研究所內에 발족했다.

이 센터는 산업·수송·건물·재료연구실 및 에너지분석실·실용화개발실 등 6個 研究室로 이루어지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研究를 수행한다.

同 센터는 자체연구를 수행하면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프로젝트도 조정한다. 내년에는 科技處의 특정연구사업에서 30억원, 動資部에서 10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연구비를 출연받아 科技處산하연구기관의 에너지절약관련연구프로젝트를 총괄, 중복연구를 피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非破壞學會, 定期總會·심포지움

會長에 辛基祚부회장 選出

韓國非破壞檢査學會는 11월 3일 第4次 定期總會를 開催, 李炳暉 1, 2대 회장의 후임으로 辛基祚부회장을 제3대 會長으로 선출하였으며 1984년도 사업결산 및 198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였다.

이어 특별강연회에서는 초음파탐상장치의 컴퓨터化(이세경) 외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기기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한편, 총회에 앞서 11월2일 韓國非破壞檢査學會는 日本非破壞檢査協會와 공동주최로 韓·日國際補修檢査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데, 이 심포지움에서는 일본비파괴검사협회의 보수검사특별연구위원회 위원장인 石井勇五郎의 「日本에서의 補修檢査 現況」외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